



**한국판뉴딜**  
대한민국 대전환
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1.01.25.(월)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최 민 혁 사무관(02-2100-2534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옥(02-2100-2860)		안 남 기 사무관(02-2100-2861) 이 영 민 사무관(02-2100-2865)
	금융위원회 산업지원팀장 전 수 한(02-2100-1680)		배 수 암 사무관(02-2100-1681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신 용 진 사무관(02-2100-2644)
	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김 성 조(02-2100-2750)		서 나 윤 팀장(02-2100-2751)

- 1 -

- ④ “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휘청거릴 때 “증시를 안정시키겠다”며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시가 살아나면서 헛발질이 됐다.”
- ⑤ “文정부 첫 관제 ‘성장지원펀드’ 3년간 9조 조성…투자는 35%뿐”
- ⑥ “낙하산 없앤다더니…금융공공기관 9곳 수장 전원 ‘관피아’”  
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① 금융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시장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  - 방문 당시에는 불법 혐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- ② 동산담보대출 관련,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산담보대출 특성상,
  - 부실률(고정이하여신비율)이 우량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.
  -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, '19년말 기준 6개 은행(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산업·기업) 3.06%의 부실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
  - 참고로, '20.6월말 기준, 해당은행의 동산담보대출 부실률은 1.37%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③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아시아나항공 3,000억원, 제주항공 321억원, 협력업체 2,393억원(85개) 등 총 5,7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-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법령상 설치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와 고용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
    -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, 시장이나 정책금융기관이 우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아껴써야 할 재원입니다.
  -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“135조원+@ 프로그램”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,
    -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법령상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④ 주가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
-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,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
- ⑤ 성장지원펀드는 '18년부터 3년간 8조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하였으며,
- 통상적인 펀드의 투자예정기간이 조성 후 약 5년간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, 조성 이후 1~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투자 집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.
  - '20년말 기준,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달성하여 9.8조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,

- 매년 펀드 조성 후 약 5년간 투자를 집행할 계획으로, 현재 3.39조원의 투자(조성규모의 34.5%)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

\* 통상 펀드 운영기간 : 조성(1년)+투자(5년)+회수(4년)

<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실적(20년말 기준)>

(단위 : 조원)

조성 기간	조성 목표	조성 금액	투자기간*	경과기간	투자실적 (누계)	조성규모 대비 투자실적
'18년	2.35	2.94	'19~'22년	2년 (50%)	2.14	73%
'19년	2.43	3.20	'20~'24년	1년 (20%)	0.88	27%
'20년	2.50	3.68	'21~'25년	-	(0.37)	10%
합 계	8.00	9.82			3.39	34.5%

※ 빠르게 조성이 마무리된 자펀드의 경우 조성 당해에 일부 투자되는 경우도 있음

- ⑥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, 금융협회는 민간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, 외부인사라고 해서 모두 '낙하산 인사'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.

- 또한,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 민간 금융기관의 이사선임, 직원 채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오.</p> <p>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p> <p>prfsc@korea.kr</p>	 <p>법률관리자 협회</p>
--	--	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